

이강인, 한 경기 9번 돌파...“최고의 드리블러” 찬사

마요르카 선수로 14년 만의 기록
셀타 비고전 1-0 승리 이끌어
골 없이도 양팀서 최고 평점 9.08

한국 축구대표팀의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이 마요르카(스페인) 선수로는 14년 만에 한 경기에서 9번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 기록·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18일(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셀타 비고전에서 이강인은 9번의 드리블을 해냈다. 2009년 오사수나전 곤살로 카스트로 이후 이 수치(9회)를 기록한 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강인은 이날 스페인 비고의 발라이도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29라운드 셀타 비고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경기 끝날 때까지 뛰었다. 이날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지는 못했으나 전반 32분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고, 후반 6분에는 프리킥 키퍼로 나서 베아트 무리키의 헤딩 슈팅 시도를 끌어내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였다. 특히 공이 발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정교한 드리블 솜씨를 뽐냈다. 옵타가 파악한 드리블 성공은 9회로, 이강인을 제외하면 세 번을 기록한 선수도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었다. 옵타는 공을 소유하면서 상대 선수를 제

칠 경우 드리블을 1회 성공한 것으로 집계한다. 이강인을 앞세워 공세를 펼 마요르카는 전반 21분 아마스 은디아에의 결승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 골로 마요르카는 약 2달 만에 승점 3을 챙겼다. 마요르카는 2월 19일 비야레알을 4-2로 물리친 이후 최근 6경기에서 3무 3패로 부진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격을 지휘한 이강인에게 양 팀 통틀어 최고인 9.08의 평점을 매겼다. 시즌 초반 정교한 왼발 크로스로 공격포인트를 쌓았던 이강인은 최근 몰론 드리블 솜씨를 보여 주고 있다.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와 국내 평가전에서도 왼쪽 측면이 아닌 오른쪽 측면에서 뛰면서 상대의 거센 압박에도 개의치 않고 절묘한 드리블로 전진해냈다. 마요르카 구단도 트위터에 이강인이 전반 35분 왼쪽 측면에서 짧은 속임 동작으로 셀타 비고의 미겔 로드리게스를 따돌리는 영상을 게재하며 드리블 실력을 조명했다. 이강인이 속도를 붙이며 전진하려 하자, 로드리게스는 이강인의 유니폼을 붙잡으면서 반칙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고 뛴 2021년 2월 21일 셀타 비고전에서도 10차례 드리블 돌파를 성공한 적이 있다. 당시 후스코어드닷컴에 팀 내 최고인 8.55의 평점을 받은 이강인의 활약에 발렌시아가 2-0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마요르카의 이강인(오른쪽)이 18일 스페인 비고의 발라이도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29라운드 셀타 비고와의 원정경기에서 곤잘로 파시엔시아를 피해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진영



전인지



유해란

전인지·유해란... '호수의 여왕' 누가 될까

LPGA 세브론 챔피언십 출전
고진영도 메이저 2승 노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총상금 510만 달러)이 20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우델랜드의 더 클럽 칼턴우즈(파72-6824야드)에서 열린다.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는 총 5개로 구성되며 이 대회를 시작으로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7월 US여자오픈과 에비앙 챔피언십, 8월 AIG 여자오픈으로 이어진다. 세브론 챔피언십은 2021년까지 ANA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명칭으로 열린 대회로 지난해 타이틀 스폰서가 바뀌면서 대회 이름도 변경됐고, 올해는 개최 시기와 장소까지 모두 바꿨다.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해마다 4월 첫 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션힐스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다.

대회가 끝나면 우승자가 캐디 등과 함께 코스 내 언뜻이 튀어드는 세리머니가 유명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회 장소가 미국 텍사스주로 바뀌었고, 개최 시기도 4월 하순으로 늦췄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를 맞아 세계 랭킹 20위 이내가 전원 출전하는 등 정상급 선수들이 거의 빠짐 없이 나온다. 세계 랭킹 1~3위인 리디아 고(뉴질랜드), 넬리 코다(미국), 고진영의 경쟁이 이번 대회에서도 관련 포인트로 쏠린다. 지난해 12월 결혼 후 첫 메이저 대회를 앞둔 리디아 고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이 대회 패권 탈환에 도전한다. 코다는 2021년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 이은 메이저 2승을 노린다. LPGA 투어 4승 가운데 3승을 메이저에서 따낸 전인지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 전인지는 2015년 US오픈,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 지난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

승했으며 이 대회 또는 AIG 여자오픈 타이틀을 추가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 된다. 지난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였던 AIG 여자오픈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 기회를 놓친 전인지가 올해 첫 메이저 대회에서 다시 '메이저 퀸'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커리어 그랜드 슬램은 한국 선수로는 박인비가 유일하게 달성한 기록이다. 이틀 세 명 외에 한국 선수로는 유소연, 김아림, 이정은, 김세영, 박성현, 지은희, 최혜진, 안나린, 최윤정, 양희영, 신지은, 유해란, 이미향 등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 2017년 유소연, 2019년 고진영, 2020년 이미향 등 4년 사이에 세 명이 우승했고, 2021년 패티 타와타나깃(태국), 지난해에는 제니퍼 컵초(미국)가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전남, 불붙은 화력으로 연승 도전

K리그2 김천상무 상대 원정경기
4월 4경기에서 11득점 '화끈'

전남드래곤즈가 불붙은 화력으로 연승에 도전한다. 전남이 19일 오후 7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상무를 상대로 K리그2 8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지난 15일 충북청주와의 7라운드 홈 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두면서 기다렸던 홈 첫 승을 신고했다. 최근 3경기 전적은 2승 1무. 충남아산과의 FA컵 3-2 승리까지 더하면 전남은 4월 한 달 3승 1무의 거침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 15일 충북청주와의 7라운드 홈 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두면서 기다렸던 홈 첫 승을 신고했다. 최근 3경기 전적은 2승 1무. 충남아산과의 FA컵 3-2 승리까지 더하면 전남은 4월 한 달 3승 1무의 거침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이번엔 만나면 김천상무는 이영재, 김진규, 권창훈, 원두재 등 국가대표급 미드필더가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강팀이다. 김지현, 조영욱, 강현목이 쉴 새 없이 골대를 위협하면서 앞선 부천전에서는 4-1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2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전남과는 승점 2점 차. 이번 경기에 따라 전남의 순위가 수직 상승할 수도 있다. '용광로 축구'에 불을 붙인 이장관 감독은 "상대가 어떤 팀이라도 전남다운 경기를 선보이고 승점 3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원정에 나서서 각오를 밝혔다. 상승세를 이어 전남이 김천상무를 상대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축구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4월 무패행진 중인 전남드래곤즈가 19일 김천상무와의 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지난 7라운드 충북청주와의 경기에서 첫 골을 넣은 고태원이 하남의 등에 업힌 채 기뻐하는 모습. <전남드래곤즈 제공>

광주FC 두현석·산드로 K리그1 7라운드 '베스트 11'

7골이 터진 광주FC와 대구FC의 경기가 K리그1 7라운드 '베스트 매치'가 됐다. 광주의 4-3 승리의 주역인 두현석과 산드로는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1 7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베스트 매치는 16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광주와 대구의 경기다. 이날 광주는 전반 18분 나운 김한길의 골을 시작으로 산드로, 허율의 연속골로 후반 14분 3-0의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고재현의 연속골에 이어 케이타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광주는 후반 41분에 나온 하승운의 결승골로 4-3 극적인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산드로와 허율의 골에 관여해 2개의 도움을 기

록한 두현석과 시즌 첫골을 터트리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산드로가 베스트 11이 됐다. 7라운드 MVP는 울산현대와의 경기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의 2-1 승리를 이끈 이진현이 차지했다. 전반 9분 왼발로 선제골을 만든 이진현은 90분 내내 대전의 불 전개 상황에 관여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활약했다. 대전은 이진현의 활약을 앞세워 울산의 개막 7연승을 저지했다. '선두' 울산을 꺾은 대전은 베스트팀이 됐다.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에서도 3명의 베스트 11이 나왔다. 전남은 지난 15일 충북청주FC와의 홈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 홈 첫승을 장식했다. 이날 전남의 선제골을 장식한 고태원과 두 번째



광주FC 두현석(왼쪽)과 산드로

골을 터트린 노건우가 베스트 11이 됐다. 또 충북청주의 공세를 막고 무실점 승리를 만든 골키퍼 김다솔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충북청주는 이날 7차례 슈팅을 선보였고, 6개가 유효슈팅으로 기록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